

목회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아들 진우와 함께 3일간의 여행을 오기며 의성 지역의 산을 현장을 보았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산들이 겹쳐 타 있었다. 뉴스로 보던 산을 피해가 아니라 내 눈앞의 현실이었다. 신봉성이마다 불길기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푸른 숲이어야 할 자라는 것은 상처로 변해 있었다. 그 중에 타지 않는 나무와 어린 맹아들의 푸른 빛들이 고마웠다. 산들은 깨졌지만, 신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성 산들과 강원도 산들 같은 대형 산들

무류가 땅으로 올라오면 겉으로는 금방 푸르게 보인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줄기가 너무 많고 가늘어져 건강하고 기지 있는 숲이 되기 어렵다. 자연복원지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땅을 정리하고, 우량목을 고르고, 밑도를 조절하고, 포양 유실을 막아야 한다. 자연복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산림경영이다.

물론 인공조림도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급경사와 바위산, 토양이 약한 곳에는 인공조림이 어렵다. 그러나 경영 가능한 산, 마을 가까운 산, 미래의 목재와 일산물과 경관을 생각해야 하는 산에는 적극적인 인공조림과 수종경신이 필요하다. 숲가꾸기의 정책이 적극 필요하다.

산은 국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 산림은 개인 신주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 모두의 생명 기반이다. 산림은 공공재이며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지원 없이 좋은 숲을 만들기는 어렵다.

외국의 산을 대체도 방치가 아니다. 산을 위협이 큰 나라들도 숲을 그냥 두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연료를 줄이고, 숲을 수고, 방화선을 만들고, 마을 주변을 관리하

의성의 불탄 산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한 산림의 미래

이 날 때마다 여러 말들이 쏟아진다. 산림정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 일도를 내서 산들이 커졌다는 말, 숲가꾸기 때문에 산들이 번졌다는 말, 소나무를 심어서 문제라는 말, 자연복원에 맡기면 된다는 말, 심지어 산림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산들은 사람의 실화와 방화, 건조한 날씨, 강풍, 급경사 지형, 과밀한 숲, 방치된 사유림, 접근하기 어려운 산길, 진화 인력의 한계가 함께 얹혀 일어나는 복합 재난이다. 산에서 산으로 또 낙동강을 뛰어 넘는 불씨들을 사람이 어떻게 막는가?

그러므로 가장 좋은 산을 대체는 대형 산들이 되기 전에 막는 일이다. 사람이 산에 들어가 잔불을 정리할 수 있는 일도와 진입로도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갈 길이 있어야 한다. 일도는 산들의 원형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면 산림경영과 진화의 생명선이 될 수 있다.

숲가꾸기도 마찬가지다. 숲가꾸기를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베어낸 부산물을 방치하거나, 하층 활엽수를 무조건 제거하거나,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숲가꾸기를 중단하는 말은 답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 과밀한 숲을 솎아주고, 죽은 나무와 병든 나무를 정리하고, 산들에 취약한 연료를 줄이고, 마을 주변에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복원도 방치가 아니다. 불탄 뒤 잡나

고, 사람이 접근할 길을 확보한다. 자연을 존중하되,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교회도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도 신앙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산림 보전은 환경운동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의 과제이며, 이웃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다. 신을 가꾸는 일은 오늘의 편의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의성의 불탄 산을 보며 생각했다. 이 피해는 남의 피해가 아니었다. 멀리 있는 타 지역 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숲, 공기, 기후, 농촌, 마을, 미래와 연결된 문제였다. 산림정책의 잘못된 것은 고쳐져, 필요한 부자는 더 해야 한다. 방치가 아니라 관리이고, 무책임한 자연복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복원이며, 예산 낭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여야 한다.

산은 기다려 준다. 그러나 산은 저절로 좋은 숲이 되지는 않는다. 좋은 숲은 마음과 시간과 노동과 부자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오늘 우리가 심고 가꾸는 숲이 다음 세대의 숲이 되고, 공기가 되고, 숲터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다.

불탄 의성의 산 앞에서 나는 다시 생각했다. 미래는 산림 가꾸기에 달려 있다. 멋진 숲의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산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신 창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상달 칼럼



두상달 전로
가정문화원 이사장

‘남자는 자존심에 목숨 걸고 여자는 사랑에 목숨 기는 동물’이라고 한다. 그만큼 남자에게는 긍지와 자존심이 중요하다. 남자들은 주로 ‘일’과 ‘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신의 유능함을 인정받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다.

반면 여자들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여자들은 다른 사랑을 보살피고 세심하게 돌보려는 전무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은 아내에게 신경안정제와 같다.

어떤 인류학자는 “아내들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백 번 들어도 결코 진력하지 않는 이상한 동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부간의 사랑 표현에 너그럽지

하루 세 번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세 번은커녕 하루에 한 번,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남편들과 살아주는 한국의 아내들은 그 얼마나 위대한가?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 모처럼

는 생생처럼 소중하지만 경멸이나 무시는 치명적인 복으로 작용한다.

“당신은 남자가 뭐 그래?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당신이 가장 노릇한 게 뭐가 있는데?”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바깥에 나가서도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으며 당당하지 못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이 변해져서 성관계도 힘들어진다. 심지어 살고 싶다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의 첫 번째 주목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것이다.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다. 절로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아내의 존경과 지지는 남자에게는 자양강장제와 같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경과 지지는 최고의 강장제요, 돈 안 드는 보약이다.

존심에 목숨 걸고, 사랑에 목숨 걸고

못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도 한몫한다. “아내 자랑하는 놈은 팔뚝 쏠리지.” “남자가 마누라 치마폭에 싸여 살면 쓰나?”

그래서인지 과묵하고 무뎉뎉한 것을 ‘남자다움’으로 착각하는가 하면 과감한 사랑의 표현을 출썩맞고 민망스러운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 결과 연애할 때는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였던 남자들도 결혼만 하면 불부처처럼 뻔뻔하고 뒤틀려진다.

미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 불고 온 장미꽃 한 다발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

한편 자존심이 목숨만큼 중요한 남자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상사에게 불리고 후배에게 치받쳐도 집에 와서는 큰소리를 치고 싶은 게 남자들의 심리다. 아내의 향적인 남자에게 아내의 평가는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경과 지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남편의 말

주님, 성경에서 남편의 입을 주관하사 그가 덕을 끼치며 생기를 주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불평하거나 추한 말을 하거나 혹은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고 충분히 연단을 받아 경건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남편을 도와주소서.

주께서는 장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자기 입술을 깨산 말에서 금해야 한다(시34:12~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남편에게 알려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사,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4:29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15:18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복음을 말하지 말고.
골3:10

부부의 말

주님, 사랑의 성경에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한 분란 없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될 때 주님도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역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우리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요 구속주이신 여호와여,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욕망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시19:14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전 10: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12:36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깨산 말에서 금하지 마라.
시34:12~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한글루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정교회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 학 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 야 간 반: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별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원, 세기총 가입 교단

